

# 고성에 샷대질·퇴장... 난장판 운영위

### 文정부 인사 문제 비판 野 3당 일방적 개최 與 뒤늦게 참석해 항의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형성됐던 여야 간의 감정적 대치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폭발했다.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회의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으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 등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지적했고, 야당은 일방적인 운영위 개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은 오후 2시 15분 개회했다. 회의 시작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개회 이후 첫 발언자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청문회 따위는 참고용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늦게 들어와서 큰 소리냐”며 제지하자,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반발하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회의냐”고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샷대질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여지자 정 위원장은 여야 의원에게 모두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면서 자



**항의... 퇴장**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박홍근 의원이 정우택 위원장에게 특별한 안건도 없이 회의를 개최했다며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를 호소하면서 가까스로 진정이 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운영위를 열어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인사 5대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조국 수석 등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받았으며 한미동맹의 위기를 이유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후 3시 회의장에서 퇴

장했으며 운영위는 야 3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끝나자 정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출석 요구에 관한 토론을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새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를 추궁하고자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운영위 개최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조 수석 등이 국회에 출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에 막중한 임무를 지닌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모습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사 검증 부실 의혹으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운영위가 열린다고 해도 참석 여부는 유동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임동욱기자 tuim@

## 국민의당 호남 민심잡기

### 비대위, 오늘 AI 농가·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방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1일 광주를 찾아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연다.

이어 AI발명에 따른 광주·전남지역의 양계 농가와 유통, 판매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검토 등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해외매각설로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사측과 노조 측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은희 시당위원장은 “지난 5·9일 대선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며 당조직 개편과 혁신을 위해 국민의당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날 진행되는 광주 민생현장 방문간담회 역시 지역 조직 혁신과 지역 현안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활동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한국당 호남 표심잡기

### 오늘 광주서 2차 전당대회 타운홀 미팅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 호남권 타운홀 미팅을 21일 광주에서 연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호텔무등파크에서 열리는 호남권 타운홀 미팅에는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참석해 호남지역 당원 표심잡기에 나선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염동열 사무총장, 광주·전남·전북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호남권 타운홀 미팅은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5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광주·전남·전북 당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비전

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특히 당 대표 후보자들은 비전 발표 후, 후보자 상호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정책과 비전을 점검한다.

후보들은 현안 문제와 당 혁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제2차 전당대회는 지난 19일 제주에 이어 21일 호남, 23일 강원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며 ▲25일 부산·울산·경남 ▲26일 충청권 ▲28일 대구·경북 ▲2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7월 2일에는 당원선거인단 및 청년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실시해 7월 3일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靑, 첫 인사추천위 개최

### 복지·산자·법무장관 인선 조율

청와대가 20일 오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내 인사추천위원회는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탓에 인사추천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체할 인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폭 넓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 경우 이미 인사추천위원회 과정을 넘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외에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현욱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추천한 5~6배수가량의 후보군을 심사해 3배수가량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들 간의 난상 토론 및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 지밀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3배수 후보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정위 “4차 산업혁명추 8월 출범”

### 대통령 직속·총리급 민간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해 8월에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차실 정례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총리급이 될 것”이라며 “7월 중 시행령을 제정해 8월 공식 출범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은 미래장조각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담당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주무부처는 미

래부로 결정했다.

또 실무지원을 위해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두기로 했으며, 미래부 내에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국정기획위 내에서 논의를 했다. (기획부와 미래부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직접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가 주무부처를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통령-총리 월요일 회동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엔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지난 12월과 19일 비공개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총리가 오찬 등의 방식으로 주례 회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례 오찬회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시절 사례를 모델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의 ‘책임총리’ 구현의 의지가 반영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에 이 전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던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월요일 주례 회동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대통령 주례 수석보좌관회의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총리 주례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전날(19일) 오찬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사항, 추가 인사 문제와 인사청문회 정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